KJCS
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

모-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

배지아, 도현심, 박보경, 김민정

주제어: 모-자녀 관계, 애착, 공유시간, 자아존중감, 주관적 안녕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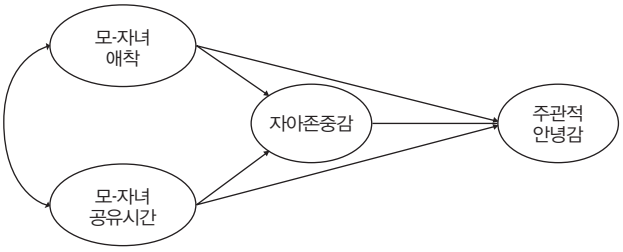

그림 1. 모-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.

표 1

모-자녀 애착, 모-자녀 공유시간, 자아존중감,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

변인	1	2	3	4	5	6	7	8	9
모-자녀 애착									
1. 의사소통	-								
2. 신뢰감	.85***	-							
3. 소외	-.62***	-.66***	-						
모-자녀 공유시간									
4. 여가시간	.40***	.36***	-.19***	-					
5. 식사시간	.32***	.26***	-.17**	.43***	-				
자아존중감									
6. 자아존중감	.46***	.44***	-.38***	.31***	.27***	-			
주관적 안녕감									
7. 관계안녕	.50***	.45***	-.31***	.38***	.26***	.56***	-		
8. 정서안녕	.61***	.61***	-.40***	.37***	.27***	.61***	.71***	-	
9. 효능안녕	.46***	.45***	-.25***	.43***	.22***	.59***	.63***	.63***	-
M	3.20	3.33	1.70	2.78	4.12	3.15	3.32	3.26	3.03
SD	.56	.47	.51	.74	1.07	.54	.55	.64	.60

Note. $N = 329$.

$^{**}p < .01$. $^{***}p < .001$.

KJCS
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

표 2
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

모형	χ^2	*df*	χ^2/df	NFI	TLI	CFI	RMSEA (LO90-HI90)
측정모형	59.577***	22	2.708	.963	.961	.976	.072 (.050-.094)

Note. $N = 329$.
$^{***}p < .001$.

표 3
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모수추정치

잠재변인	측정변인	*B*	β	S.E.	C.R.
모-자녀 애착	의사소통	1.000	.917	-	-
	신뢰감	.842	.926	.035	24.221***
	소외	.683	.692	.045	15.081***
모-자녀 공유시간	여가시간	1.000	.775	-	-
	식사시간	.710	.550	.113	6.273***
자아존중감	자아존중감	.460	.928	-	-
주관적 안녕감	관계안녕	1.000	.806	-	-
	정서안녕	1.263	.867	.074	17.142***
	효능안녕	1.037	.755	.071	14.584***

Note. $N = 329$.
$^{***}p < .001$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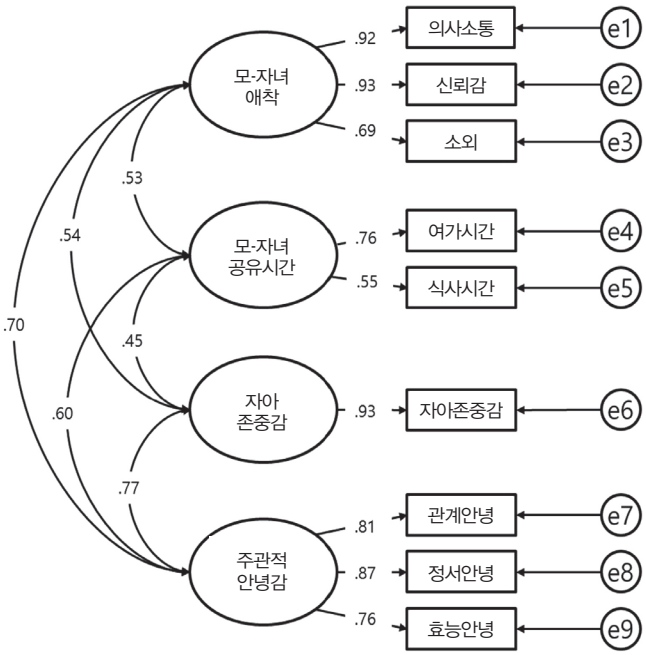

그림 2. 측정변인의 요인적재 모수 추정치.

KJCS
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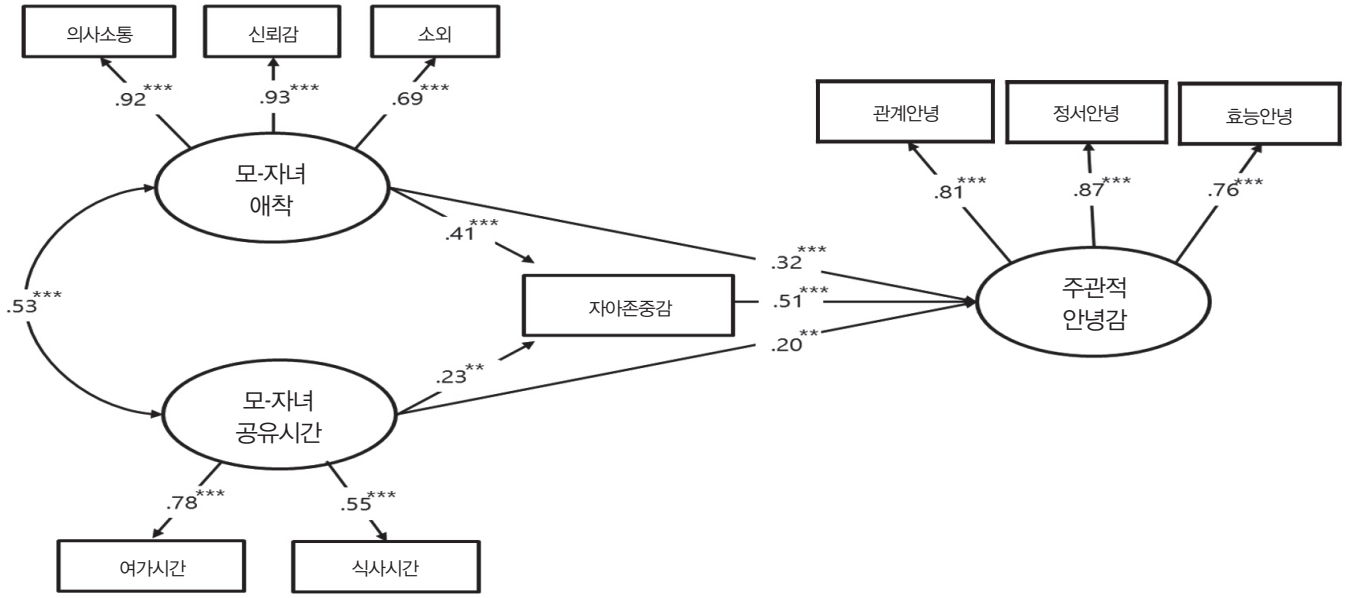

그림 3. 모-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·간접 경로.
$^{**}p < .01$. $^{***}p < .001$.

표 4

잠재변인의 경로계수 추정치

잠재변수 간의 경로			*B*	β	*S.E.*	C.R.
모-자녀 애착	→	주관적 안녕감	.270	.318	.050	5.359***
모-자녀 공유시간	→	주관적 안녕감	.158	.198	.054	2.934**
자아존중감	→	주관적 안녕감	.208	.514	.023	8.897**
모-자녀 애착	→	자아존중감	.862	.411	.152	5.671***
모-자녀 공유시간	→	자아존중감	.458	.232	.168	2.730***

Note. $N = 329$.
$^{**}p < .01$. $^{***}p < .001$.

표 5

구조모형에서의 직·간접효과와 총효과I

변수경로			표준화된 경로계수			SMC
			직접효과	간접효과	총효과	
모-자녀 애착	→	주관적 안녕감	.318***	.211*	.529***	.738
모-자녀 공유시간	→	주관적 안녕감	.198**	.119**	.317**	
자아존중감	→	주관적 안녕감	.514**	-	.514**	
모-자녀 애착	→	자아존중감	.411***	-	.411***	.325
모-자녀 공유시간	→	자아존중감	.232***	-	.232***	

Note. $N = 329$.
$^{*}p < .05$. $^{**}p < .01$. $^{***}p < .001$.

KJCS
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

모-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

배지아, 도현심, 박보경, 김민정

주제어: 모-자녀 관계, 애착, 공유시간, 자아존중감, 주관적 안녕감

강수희, 장석진 (2013).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매개효과-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. *상담학연구, 14*(4), 2395-2416.

고영남 (2008). 중학생의 부 애착, 모 애착,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. *열린교육연구, 16*(2), 111-131.

구경호, 김석우 (2014).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: 자아분화의 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. *청소년학연구, 21*(6), 281-307.

권지은 (2011). *아동기 가족의 가족여가활동 실태와 가족여가 만족도 및 장애들에 관한 연구*(미출판 석사학위논문). 울산대학교, 울산, 한국.

김갑숙, 전영숙, 이철우 (2009). 청소년의 부모 애착, 자아분화,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. *한국가족치료학회지, 17*(1), 209-224.

김계수 (2007). *New AMOS 16.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.* 서울: 한나래.

김명소, 김혜원, 차경호 (2001).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: 한국성인 남녀를 대상으로. *한국심리학회지: 사회 및 성격, 15*(2), 19-39.

김수빈, 이숙 (2014). 아동의 모애착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: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질의 매개효과. *놀이치료연구, 18*(2), 33-51.

김연희 (2005). *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: 자아존중감과 자기 통제력을 매개변인으로*(미출판 석사학위논문). 숙명여자대학교, 서울, 한국.

김춘경, 한은수, 조민규 (2013).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정서지능, 자기 효능감, 학교적응 간의 구조분석. *어린이문학교육연구, 14*(1), 209-229.

노영윤 (2005). *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분석*(미출판 석사학위논문). 전주교육대학교, 전주, 한국.

노영천, 김홍석 (2012).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부모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낙관성의 매개효과. *상담학연구, 13*(6), 2625-2640.

노지운, 신나나 (2014).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적 사고의 중재효과. *아동학회지, 35*(3), 137-156.

도현심 (2012). *첫 부모역할 책.* 서울: 지식채널.

민하영 (2008). 부모간 갈등 및 조모/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. *한국가정관리학회지, 26*(2), 33-41.

박경리, 김경연 (2001).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영향: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. *아동학회지, 22*(4), 85-97.

박병기, 홍승표 (2004). 주관적 안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. *교육심리연구, 18*(3), 159-175.

박병기, 송정화 (2007). 주관적 안녕의 2X3 다차원 요인구조. *교육심리연구, 21*(3), 591-611.

박은정, 최수미 (2014). 한국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 척도 타당화(K-WBMMS) 연구. *청소년학연구, 21*(8), 495-511.

박진화 (2009). *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과의 관계*(미출판 석사학위논문). 순천대학교, 순천, 한국.

박현철, 김성봉, 홍달아기 (2011).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. *한국가족관계학회지, 16*(3), 167-193.

박희경, 권경인 (2012).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: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. *청소년학연구, 19*(12), 301-329.

배주영, 도현심, 이선희, 신정희 (2015).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, 또래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령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. *아동학회지, 36*(6), 59-83.

성다겸, 김춘경 (2015). 초등고학년 아동의 부-모애착, 또래애착, 교사애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: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. *아동학회지, 36*(4), 129-142.

성순정, 권순자 (2010). 혼자 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형태가 아동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에 관한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. *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, 15*(2), 206-226.

신미, 전성희, 유미숙 (2012).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, 자아존중감, 삶의 만족,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. *아동학회지, 33*(1), 81-92.

신형자 (2010). *아동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*(미출판 석사학위논문). 충남대학교, 대전, 한국.

안지영, 오미경, 김지신 (2011). 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: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의 매개 역할. *아동학회지, 32*(6), 63-79.

염유식, 김경미, 이은주, 이승원 (2015). *한국 어린이·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.* 서울: 한국방정환재단.

옥정 (1998). *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 성향과의 관계*(미출판 석사학위논문). 이화여자대학교, 서울, 한국.

위종희 (2012). *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, 자아탄력성, 사회적지지, 스트레스 대처 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관계분석*(미출판 박사학위논문). 동아대학교, 부산, 한국.

유설희, 박보경, 도현심 (2015).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. *아동학회지, 36*(2), 55-74.

이소현, 도현심, 최미경, 구슬기 (2010). 어머니의 양육신념이

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: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. *아동학회지, 31*(3), 255-272.

이숙, 최정미 (2003).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. *대한가정학회지, 41*(2), 1-12.

이승미, 이기영 (1998).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. *한국가정관리학회지, 16*(2), 123-136

이정미, 이양희 (2007).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, 어머니의 양육행동, 사회적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. *한국심리학회지: 발달, 20*(4), 33-58.

이주연 (2012).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여가활동과 여가기능이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. *한국심리치료학회지, 3*(2), 21-34.

이현주, 이미나, 최인수 (2008).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(K-WBSA)의 타당화 및 삶의 질 분석. *교육심리연구, 22*(1), 301-315.

이희은, 문수백 (2012).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. *한국가정관리학회지, 30*(3), 45-57.

임은정 (2012). *가족기능성,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가 학령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*(미출판 석사학위논문). 이화여자대학교, 서울, 한국.

전귀연, 임주영 (2002). 노인의 애착 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. *한국노년학, 22*(3), 173-191.

전유진, 유미숙 (2014). 어머니 애착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. *열린유아교육연구, 19*(1), 187-202.

정희선, 박성연 (2010).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. *아동학회지, 31*(1), 19-33.

조금숙, 조증열 (2004).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: 성역할태도,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. *한국심리학회지: 여성, 9*(3), 27-41.

조신혜, 진미경 (2015). 청소년의 부.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. *아시아아동복지연구, 13*(1), 95-112.

조한익 (2011).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, 희망, 우울증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분석. *교육심리연구, 25*(1), 153-174.

주지영, 박성연 (2013).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낙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. *아동학회지, 34*(3), 21-38.

최미경 (2010).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. *대한가정학회지, 48*(10), 65-75.

홍세희 (2000).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과 그 근거. *한국심리학회지: 임상, 19*(1), 61-177.

홍승표 (2008). 사회적 유능에 따른 아동 자아개념 및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. *아동교육, 17*(2), 311-321.